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의 다양한 얼굴들¹⁾

손민석(조선대)

1. 들어가면서

‘반지성주의’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논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가 지목되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규정했다. “과학과 진실”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지난 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²⁾ 한편 취임식 직후 여야 정당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반지성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향해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끊어내고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지팡이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회권력 유지를 위한 흥기”로 써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현 집권세력 및 “대통령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라고 곧바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집권세력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반지성’으로 몰아세우면서, 반지성주의 담론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상은 현 집권세력의 여성·외국인 관련 정책이야말로 퇴행적인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아울러 “정권의 비서관들도 모두 과학과 문화와 지성을 배반한 반지성주의자들”이며, 이들을 퇴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신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³⁾

이 글에서는 제도권정치에서 일상화된 정치선전 및 현안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얼굴을 검토한다. 반지성주의 담론을 둘러싼 가치논쟁을 실시간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제도권 내부 권력투쟁만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충분하다. 한편, 다른 층위에서 보면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용어는 단어 내부에 부정성(negativity)을 담지하면서, 타격대상(‘지성주의’)을 분명하게 지목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논쟁적·정치적 개념이다. 또한 오늘날 반지성주의 정치담론을 살펴보면 대개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반지성주의 극복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논쟁적·정치적 개념이다.

‘(반)지성’의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담론의 지향점(orientation) 및 추세(temper)가 달라진다. 가령 반지성주의를 비판할 때, ‘반지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거부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지성이 지배’하는 삶의 요체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모두가 ‘지성의 삶’(Intellectual Life)의 화신인 소크라테스처럼 타고르는 지적 욕망을 가지고 ‘반지성주의’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회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을 과감하게

1) 이 글은 2022년 10월 정기학술회의 발표를 위해 작성된 대단히 거친 초고입니다.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글이기에 인용을 불허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69>

3) 정상훈·신한나. “尹정부 출범 하루만에...여야, ‘반지성주의’로 극단 대결”. <서울경제> (2022.5.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XG57REJ>

던질 뿐 아니라, 당대 시민문화에 대한 존중보다 궁극적 앎을 추구하는 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소크라테스적 ‘지성의 삶’을 요청하는가. 모든 시민이 소크라테스적 지성의 삶으로 통치한다는 이상(理想)은 아마도 급진적인 계몽운동과 평등주의를 결합한 이들의 유토피아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관해『미국의 반지성주의』저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끈질기고 섬세한 방법으로” 가능한 반지성주의 근절을 위해 힘쓰더라도, 그는 “반지성주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만 아니라 이런저런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고삐 풀린 열정은 우리 시대의 다른 망상들처럼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⁴⁾

반지성주의 담론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까닭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용되는, 모호하고 양면적인 개념들이 중첩된 상태를 ‘(반)지성’ 담론으로 통칭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문해력 부족 문제부터 공통감각 균열 혹은 시민교양(civility)의 부족, 성찰이 결여된 기술 관료주의, 엄정한 학문정신의 포기까지, 또한 몰상식적인 종교광신에서부터, 반엘리트적 평등주의, 종교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비합리주의, 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 철학사조에 이르기까지, 상충하는 수많은 생활방식과 담론이 정치공박 속에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진다. 반지성주의 담론이 표출되는 개별적인 정치적·역사적 맥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반지성주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화자의 의도와 효과,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논쟁 맥락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접점을 가진 여러 사안들이 중첩되면서 창발적 변화를 일으키는 복합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짧은 시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을 언급하고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심심한 사과’ 논란에서 재점화된 문해력(Literacy) 저하 문제를 다룬다. 다음으로 디지털 세계에서의 진실체계의 감각변화와 게임화(Gamification)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종교적 부흥주의(Revivalism)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교차성을 다루고, ‘반이성주의’(Anti-Rationalism) 사조와 결부된 반지성주의 담론을 논의한다. 끝으로 현재 반지성주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여러 현상을 ‘반지성주의’로 명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한다. 개별 현상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은 후속과제로 미루어 둔다.

2. 문해력 논란과 반지성주의

2022년 8월 ‘심심한’ 사과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다. 작가사인회 예약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자, 주최 측은 “불편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는 안내문을 내보냈다.⁵⁾ ‘간절하고 깊은’ 마음으로 사과한다는 의미로 올린 ‘심심(甚深)한’ 사과문이었지만, 일부 트위터 유저들은 ‘지루하고 따분한’(=심심한) 사과문으로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오독해서, 비판댓글들이 달렸다.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⁶⁾ 문해력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한자 사용’이 문제라는 발언이 회자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트위터 실시간 트랜드에 등장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각에서는 “반지성주의 사회” 도래를 지적했다.⁷⁾

4) 리처드 호프스태터. (2017)『미국의 반지성주의』(고유서가) p.47.

5) 모펀카페 AK& 홍대점 공식 트위터 계정(@mofun_collabo2) “<야화첩>×모펀 번덕 작가 사인회 예약 관련 안내” https://mobile.twitter.com/mofun_collabo2/status/1560954643525447680

6) 이가람.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 ...사과문이 쏘아올린 ‘문맹’ 논란”. <매일경제> (2022.8.2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8/738182/>

7) 전성원. “‘심심한 사과’ 논란, 지식인 책임은 없나.” <한겨레> (2022.8.23.)

‘심심한’ 사과문 논란에서 ‘반지성’ 담론은 여러 관념과 태도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먼저 신세대들의 문해력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전에도 ‘사흘’을 ‘4일’로 오인하면서 벌어진 갑론을박이나, ‘금일’(今日)을 ‘금요일’(金曜日)로 착각한 해프닝 등이 일어나면서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 기존 언론매체들은 20년도 더 된 자료(2001년) 일부를 가지고 한국의 실질문맹률이 75%에 달한다는 왜곡보도를 내기도 했다.⁸⁾ 비교적 근래 시점인 2020년 조사된 성인문해력조사에 따르면, 실질문맹률은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까지 합해도 8.7%였다. 성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79.8%)이었다. 무엇보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충분한 문해력 수준’을 기준으로 40대 이하(18~39세) 연령대가 가장 높고(95.3%), 40대(91.5%), 50대(82.8%)로 갈수록 내려갔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문해력이 현격히 낮았다. 성인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⁹⁾

<연령별 문해능력 수준>

(단위: %)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상
18~29세	0.2	0.5	4.0	95.3
30~39세	0.1	0.3	4.3	95.3
40~49세	0.8	0.8	6.9	91.5
50~59세	1.9	2.3	13.0	82.8
60~69세	5.3	7.9	22.4	64.4
70~79세	13.7	19.4	25.7	41.1
80세 이상	49.3	14.2	13.6	22.9
전체 응답자	4.5	4.2	11.4	79.8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2011-2012년 OECD 성인역량조사를 바탕으로 세대 간 문해력 차이를 분석한 연구(2015년)에서도 “한국의 16-24세층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4위)을 보였다. 45-54세층이 평균 이하였고, 55-65세층이 하위 수준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한국은 55-65세층과 16-24세층의 문해력 차이가 가장 큰 나라”였다. 이는 교육 경험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다. “전후(前後) 산업화 시기 청소년기를 지낸” 기성세대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¹⁰⁾ 이런 분석을 염두에 둘 때 ‘심심한 사과’ 논란을 단지 요즘 세대들의 낮은 문해력만으로 마냥 접근하기는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55884.html>

8) 장슬기. “‘심심한 사과’ 논란에 쏟아진 실질문맹률 보도, 기자들 ‘문해력’이 진짜 문제였다” <미디어오늘> (2022.8.3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35>

9)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p.30.

<https://www.le.or.kr/contentView.do?menuId=8>

10) 황혜진. (2015). “OECD 성인역량조사결과에 나타난 세대 간 문해력의 차이”. <통일인문학> 61. pp. 596-598.

다만 국제조사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15세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제학업성취도(PISA) 2018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PISA 읽기 영역(평균점수: 514점)이 참여국 가운데 상위권(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 전체 참여국 중 6~11위)이지만, “여러 주기에 걸친 읽기 소양결과를 검토해” 볼 때 2006년부터 “읽기 평균 점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순위 역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¹¹⁾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세대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언어교체”와 같은 시대변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 한국어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와 긴 단어나 문장을 축약한 용어 등의 유입으로 빠르게 분기하며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소통양식과 언어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¹²⁾ 급변하는 디지털세계에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미묘한 정서를 담아내는 세대어가 빠르게 갱신되고 있다. 언어의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사유의 감각이 달라지고 있다. ‘언어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 관점에서 보면 언어의 구조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 역시 달라진다.¹³⁾

인터넷 등장으로 생긴 변화는 일반인들의 비격식 글쓰기(informal writing)가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¹⁴⁾ 과거에도 비격식 글쓰기는 있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대중들은 흔하게 비격식 글쓰기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했다. 이전에는 격의 없는 의사소통을 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표준문법과 무관하게 편안하게 글을 쓰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휘발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허물없이 편안하게 말을 할 때처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적인 글을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면서(혹은 문자나 카톡을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생활방식은 현실세계의 감각을 재구성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가 예전에는 말로 하던 상호작용의 일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의 교환으로 바꾸어놓았다.”¹⁵⁾

디지털 시대에 정보 흐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발전한 인터넷 약어는 비격식 글쓰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안녕 대신 ㅇㄴ’. ‘동의를 의미하는 ㅇㅇ’. 비격식 글쓰기에서는 이모티콘 및 이모지를 통해 정서를 전한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네~😊’. 또한 “상황에 따라 ‘네.’, ‘네!’, ‘넵’, ‘넹’, ‘네엠편’ 등을 잘 골라 쓴다.”¹⁶⁾ 근대세계까지는 격식을 갖춘 문어(文語)의 경우 문학적 장치를 배치하는 전통적 기법이 활용되었다면, 인터넷 언어는 “글과 신체가 합쳐지고, 문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세계를 열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근대에는 언어를 책으로 생각했다

11) 조성민 외. (2019). <OECD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 PISA2018결과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58.

12) 류용재. “‘심심한’이 촉발한 문해력 논란…세대론적 접근은 잘못된 해법”. <한겨레> (2022.9.21.)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59574.html>

13) 언어가 인지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는 언어 상대성 관점은 신경과학 분야로 확장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근래 한 연구에 따르면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의 측면에서 언어는 뇌생리학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새로운 뉴런 연결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능력과 같은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생리적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모국어 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들이 상이한 변조(modulations)를 나타냈다.” Panos Athanasopoulos, Aina Casaponsa. (2020). “The Whorfian Brain: Neuroscientific Approaches to Linguistic Relativity.” *Cognitive Neuropsychology* 37(5-6). p.16.

14) 구어(口語)가 격식을 갖춘 말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말로 나뉜 것처럼, 문어(文語) 역시 격식체의 글과 비격식체의 글이 있다. 그레첸 매컬러. (2022). <인터넷 때문에> (어크로스). p.13 (아래 표는 p.22).

	구어	문어
비격식(Informal)	대화, 혼잣말	문자, 채팅, SNS, 일기, 메모
격식(Formal)	연설, 라디오, TV, 연기	책, 논문, 정적인 웹사이트

15) 그레첸 매컬러. (2022). <인터넷 때문에> (어크로스). p.229.

16) 정인선. “[책&생각] 부장님은 왜 카톡마다 말줄임표를 쓸까?” <한겨레> (2022.6.2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48327.html>

면 오늘날은 언어를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전자의 은유에서 우리는 “언어를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하는 단어모음”을 떠올린다. 마치 관목을 계속해서 다시 다듬는 정원사 이미지처럼 말이다. 하지만 언어를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은 “누가 다듬고 잡초를 뽑지 않아도 숲이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¹⁷⁾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적 대본에 따라 매끄러운 인사치레 표현 역시 다른 세대에게는 반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양 근대 초기에 작성된 편지를 보면 낱자와 함께 “경계 누구보다 겸손하고 다정한 ○○○” 서명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본은 대개의 경우 “진정한 것이라기보다 기계적인 것이다.” 낱은 클리셰인 것이다. 일례로 1804년 공손함을 의례적으로 표현한 “당신의 순종적인 종이 될 영예를 누리며” 문구로 마무리된 해밀턴의 편지가 발송된 이후 결투로 이어졌다. 21세기 직장에서 사용하는 업무메일에 이런 종류의 의례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dear’(친애하는) 표현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dear’는 메일을 발송할 때 이전 세대부터 에티켓처럼 사용해 온 관습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매너 차원에서 ‘dear’를 사용하라는 조언에 젊은 세대들이 저항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한 가지 이유는 편지를 써본 적 없는 세대가 “이 단어를 오직 친밀한 것으로밖에 읽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¹⁸⁾ 관계를 끝내려는 수신자에게 친애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느낌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업상 지인에게는 ‘dear’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인사말을 생략한 채 비즈니스 서신을 보내거나 단순히 수취인 이름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선호하기도 한다.”¹⁹⁾ ‘dear’라는 표현이 “오싹하고, 지나치게 친밀하게 보이고, 일부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내답지 못하고 계집애처럼’(effeminate) 보인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경우도 있다.²⁰⁾ 많은 인사말 가운데 특정한 표현이 선택되어 온 이유는 대개 익숙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 역사적으로 보면, 인사말의 변화는 그냥 변화일 뿐이다. 언어는 특정한 시점을 살아가는 인간 개인의 머릿속에 살아 있는 것”이며, “고정된 규칙서에 온전히 담길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변화 말이다.”²¹⁾

한편 의사소통 규범이 늘 유동적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빠르게 변한다. 원활한 상호소통을 위해서는 공통감각이 요구된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일정한 공통감각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배워야 할 신조어들도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감각에 익숙해질 즈음이면 유행도 빨리빨리 바뀐다. 비유하자면 언어시장(linguistic market)에 거래는 많고 회전을 역시 높은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신세대의 어휘력을 탓하곤 하지만, 이들 역시 신조어를 모르긴 매한가지다.

언어시장에서는 언어적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되어서 특정한 언어적 생산물이 형성된다. 시장은 마치 인허가 및 검열 시스템처럼 돌아간다. 사회적 권력관계와 결부되어 언어들의 가격은 ‘적절하게’ 책정되어 유행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언어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다.²²⁾ 중요도 책정은 사회적 관계망과 결부되어 있다. 가령 10대 청소년들에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심심한 사과’와 ‘알잘딱깔센’ 가운데 필요한 것(중요도)을 묻는다면, 후자를

17) 그레첸 매컬러. (2022). <인터넷 때문에> (어크로스). p.393.

18) 그레첸 매컬러. (2022). <인터넷 때문에> (어크로스). pp.302-304

19) Lynn Gaertner-Johnston. (2005). “Do I Have to Call You “Dear”?” *Business Writing*.
https://www.businesswritingblog.com/business_writing/2005/08/do_i_have_to_ca.html

20) Maeve Maddox. (2015). “Starting a Business Letter with Dear Mr.” *Daily Writing Tips*.
<https://www.dailywritingtips.com/starting-a-business-letter-with-dear-mr/>

21) 그레첸 매컬러. (2022). <인터넷 때문에> (어크로스). pp.304-305

22) Pierre Bourdieu and Laic J. D.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45.

선택할 것이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를 의미하는 ‘알잘딱깔센’은 친구들끼리 문자할 때 자주 주고받는 단어이기 때문이다.²³⁾ 이에 반해 기성세대 언어시장에서 ‘알잘딱깔센’은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여긴다.

어차피 기성세대들도 신조어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전통적인 한자어를 몰라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의 많은 부분이 한자어이다. 문해력을 높이고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휘력이 좋다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창(窓)이 다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모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단어를 ‘알지 못하는 상태’보다 ‘무지에 대한 당당함’,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깊은 문제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보다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신하는 태도’였다. 심심한 사과를 지루하고 따분한 사과라는 의미로 확정짓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설령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카페 업체가 공지문 올리는 맥락이 ‘무한도전’ 예능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지루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²⁴⁾ 아울러 단어를 몰라도 전체 글의 맥락 속에서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특정 단어를 자의적으로 탈맥락화한 다음에 업체의 사과문 내용이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합리적 판단을 저버린 채 마구잡이로 우긴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기에는 경청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맥락읽기 실패라는 지적과 반지성주의 담론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충분할까. 사과문이라는 맥락과 반응의 맥락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 사과문이라는 맥락이 있는데 왜 선한 의도로 해석하지 않고 저런 무식한 반응을 보이냐는 비판을 생각해 본다. 격식을 갖춘 사과문에 대해서, ‘아이고, 놀고들 계세요’ 식의 반응을 ‘반지성’ 담론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약시스템이 오류가 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격식을 차려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이나 간절함이 안 다가왔을 때 터트릴 수 있는 분통의 일환일 수도 있다. 단어의 알고 모름을 떠나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논란을 바라보면서 언어활동을 서비스 차원으로만 이해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약해진 세계를 염려했다.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일차적으로 커머셜 업체가 진행한 이벤트 예약취소와 관련된 ‘고객’의 ‘클레임’ 맥락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도 안 된다. 물론 소비행위와 관련된 소통의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은 왕이다’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억지 부리기나 갑질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고객의 클레임이라는 맥락에서 냉소적인 반응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 ‘반지성’ 담론으로 통칭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반지성주의 담론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네트워크 시대의 정보 생산 및 유통 방식에 대한 감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과거 격식 글쓰기와는 다른 비격식 글쓰기 스타일로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예약시스템 오류와 유저들의 클레임으로 촉발된 온라인에서의 갑론을박 사건이 ‘이음새없는(seamless) 방식으로’ 아날로그 세계에서 공적성과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식할 뿐 아니라 모르는 게 있어도 배우려 들지 않는 고집불통’을 비판하는 ‘반지성’ 담론이 새롭게 주조되는 규칙과 새로운 문법을 더 깊게 탐구하도록 독려하기보다 기존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하고 다른

23) KBS. “‘심심한 사과’ vs ‘알잘딱깔센’...우리는 소통하고 있나요?” <KBS 뉴스 9> (2022.10.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4412>

24) 심심한 사과 논란 직후, 온라인공간에서는 과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자, 유재석이 “아! 심심해요?” 라고 반응하는 인터넷 밈이 돌아다니면서 화제를 낳았다.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는 없을까.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윤리적 판단은 필요하지만 경직되지 않는 지적 유연성 역시 발휘될 필요가 있다. 호프스테터의 표현을 빌린다면 지성의 삶은 “경건함과 장난스러움(pieté and playfulness)”을 오가면서 균형을 잡아간다. 과도하게 심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지한 탐구를 요청한다.²⁵⁾ 기존의 문법과 사회적 대본을 위반하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흐름을 서둘러 전통적인 ‘반지성’ 담론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모른다는 사실부터 출발점으로 삼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경청하고 탐구하면서 말이다.

* * * * *

※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얼굴들 가운데 첫 번째 국면인 문해력(Literacy) 문제를 소개했다. 게임화(Gamification)된 세계, 종교적 부흥주의(Revivalism) 및 정치적 포퓰리즘, ‘반이성주의’(Anti-Rationalism) 사조에 관해서는 발표를 위한 주요 요지만 언급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양해를 부탁드린다.)

3. 게임적인 리얼리즘과 반지성주의

○ 근대의 거대서사의 쇠퇴와 ‘시뮬라르크’ 세계의 도래.

- 근대세계에서의 거대서사와 관련해서는 “역사의 종말(End of History)”에 대한 꼬제브-스트라우스의 논쟁. 꼬제브는 철학(이념)과 정치의 변증법 논의. 자기를 실현하는 자의식. 타자와의 투쟁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정투쟁. 이념의 현실화를 모색하면서 철학이 현실변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이에 반해 스트라우스는 철학의 세계와 정치 세계의 간극을 강조. [꼬제브가 ‘시민철학자’(citizen-philosopher)였다면, 스트라우스는 ‘이방인철학자’(stranger-philosopher)에 가까움]. 스트라우스 입장에서는 철학과 정치의 간극이 좁아지게 되고, 이념이 현실화되어 완성되는 세계는 더 이상 철학이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 철학을 포기한 채 쫓고라든 정신을 가진 ‘마지막 인간’은 ‘포스트-히스토리’ 시대에 동물과 같이 소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 말하자면 ‘동물화하는’ 세계는 철학적(지성적) 삶의 종식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봄.

- 아즈마 히로키는 꼬제브 논의를 참고하면서, ‘동물화’와 ‘속물화’ 논의를 발전시킴(<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새로운 세계에서 소비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봄. 과거처럼 거대 내러티브가 심층에 있고, 표층에는 여러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품이 소비되는 세계가 아님. 도리어 심층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의 집적이 있음. 또한 원본의 맥락과 무관한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계.

○ 게임적 세계관의 출현

- 게임적 세계관(1): 디지털 공간에서의 재미와 보상의 게임 문법. RPG(Role Playing Game)

25) 리처드 호프스테터. (2017)『미국의 반지성주의』(고유서가) p.57

- 의 캐릭터 레벨업(level-up) 문법. 싸움에서 적을 격파하고 즉각적인 보상 체계. 서브컬처에서 나타나는 게임 문법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감. 일상의 게임화. 오디션 프로그램.
- 게임적 세계관(2): 아즈마 히로키의 게임적 리얼리즘은 이와는 다소 다른 결을 보여줌. 커뮤니케이션의 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커뮤니케이션 조건에 주목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을 새로운 형식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기존의 정형화된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임적 상상력 논의.

○ 미디어의 신체성과 경합하는 커뮤니케이션 문법

- 동일한 텍스트를 접하더라도 어떤 미디어로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체계로 지식이 구성되고 새로운 감각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됨. 과거처럼 신문을 읽는 세대와 구독서비스를 읽는 세대는 지식체계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됨. 말하자면 미디어의 신체성 문제가 중요.
- 미디어는 물리적 실체인 동시에 제도이자 관습이라는 점.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원주민이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각각 다름. 새로운 문법체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각이 달라짐.
- 한편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권력을 두고, 기존의 지배블록과 피지배블록(혹은 신생블록) 간의 경합이 이루어짐. 그런데 새롭게 진입하는 세력들이 과거처럼 거대한 의미의 투쟁에 동일한 형식으로 몰입하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거처럼 거대서사를 동원하면서 기억 투쟁을 하는 것 같지 않음. 이 점에서 동일한 층위에서, 동일한 강도로 맞부딪히는 경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

○ 포스트 트루스 시대, 탈맥락화와 자의성을 둘러싼 상이한 감각

-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지식의 권위는 부차적이 됨. 옳고 그름의 문제 자체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은 시대에 아무리 탈맥락화하고, 자의적으로 재편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해도 그 자체를 개의치 않음.
- 거대서사의 쇠퇴와 데이터베이스 집적의 시대. 더 이상 원본과 가짜의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은 시대에 “2차 창작”의 유행. 온라인 밈의 세계.
- 자의적 체계를 문제 삼게 될 때, 1차 반응은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식. 결론 잡아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전유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 기존 문법체계를 파괴하고 재기입하는 방식. 편집점 잡아서 어젠다 세팅하는 형식을 하고 있다고 미러링. 아울러 너나 나나 똑같이 ‘빨jit’하지 않았냐고 공격. 비판의 토대를 무너뜨림.
- 그래도 진실을 강조하고 올바른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반지성주의 비판을 하면 2차 반응은 그렇게 비판할 거면 비판하라고 자신들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심드렁하게 있음. 팩트 내러티브, 진실을 둘러싸고 무한루프.
- 감각이 다르고,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부딪히면 이리저리 빠져나감.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전통적 의미에서의 억지 부리기와는 다른 양상. 말장난과 같음.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반응하면,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그러시던가 하는 방식으로 심드렁하게 빠져나감.

○ 반지성주의 비판 담론의 유효성

-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지성의 삶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

야 할지 곤란해진 상황. 전통적 의미에서의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

- (아렌트의 사실적 진실(fatual truth) 강조나 스트라우스의 비판적 탐구(zetesis)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격식을 갖춘 지성의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 상황. 가령 아렌트는 새로움을 가져오는 사건들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한 이야기하기(story-telling)나 정치현상을 전체화된 체계에 옥여넣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조망하기 위해서 사실적 진실을 강조했는데,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게 됨. 또한 전통적인 정치철학을 고수해 온 스트라우스처럼 참된 앎을 추구하는 정치철학이 가능한 조건인지도 되묻게 됨.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디지털 연결망과 비판적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 한 가지 출발점은 반지성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주조되고 있는 감각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서의 집단신화가 어떻게 주조되고 있는지를 탐색해야 함. 다음으로는 종교적.정치적 동원 기제와 반지성주의 검토

4. 종교적.정치적 부흥주의(Revivalism)와 반지성주의

○ 포퓰리즘과 비이성적인 방식의 정치동원 문제

- 정치적 차원에서 포퓰리즘 문제 제기. 광장을 점거한 종교정치세력들과 유사종교적 정치운동. 성찰성을 결여한 채 맹목적인 지원. 대중들의 기존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어용지식인들과 어용종교인들의 대중화 작업. 때로는 공론장을 혼돈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어깃장놓는 종교선동가들.
- 안티백서운동과 같은 음모론을 조장하는 반 과학세력들 규합.
- 반지성주의의 문제와 종교적 부흥주의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들(호프스테터)

○ 종교적.정치적 부흥주의(Revivalism)

- 종교적 부흥주의와 반지성주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호프스테터.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의 맥락. 세계관적인 투쟁과 반지성주의적 근본주의의 영향. 종교부흥운동과 대중추수전략.
- 가속적인 한국의 근대화 흐름 속에서 근본주의적 종교세력 양적 확대. 포드주의 시스템에서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는 대량생산체제. 신속한 대중추수전략을 세우면서 논의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온 흐름.
- 한편 반지성주의 신화는 비단 전통적인 제도종교만의 문제가 아님. 황우석 논문조작사태에서 드러난 이른바 부흥주의. 내셔널리즘과 과학기술주의를 결합한 국익 프레임(‘국뽕’ 신화).
- 여러 가지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면서 반지성주의 담론 등장. 시민교양 부족을 비판.

○ 주권자 인민의 의지와 지성주의

- 그런데 지적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일련의 흐름들을 반지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할 때 생기는 어려움. 민주주의 이념인 주권자 인민의 의지가 반지성주의와 결합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가.
- 전통적인 지성주의는 이른바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인문교육 강조. 하지만 여전히 계몽(Enlightenment)과 몽매(Obscurantism) 구도 속에서 선도해야 하는 지적 엘리트의 역할 강조. 적극적 철인정치를 주장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세계에서의) 철학자의 통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문화적인 지평에서) 고등교육이나 일반인들의 교양증진으로 논의를 한정지음(스트라

우스와 같은 이들이 취하는 후자의 입장). 여전히 민주주의 세계에서 엘리트주의라는 한계(지적 귀족주의). 지식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문제는 남겨져 있음.

- 민주주의 세계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식인 사회에 대한 경멸과 반지성주의 흐름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우려스러운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모든 불신을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 드러난 작동모의들.

(‘배반자’ 지식인 상(象)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반지성주의 연원을 추적한 최정운 논의 참조). 호프스테터가 미국에서 나타난 반지성주의를 지식인을 혐오하는 사회(society)와의 대결(intellectual vs. society)로 분석했다면, 근대 한국인의 탄생과정에서 등장한 반지성주의는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주장. 지식인들은 배반자이고 무기력하다는 자괴감을 지식인들 자신이 만들어낸 이념이라고 지적(지식인의 자조로 탄생한 반지성주의 담론). 이념의 갈등상황과 망국의 현실 속에서 벽초라는 지식인은 자신에게 던지는 욕으로 <임꺽정> 집필(<한국인의 탄생>). 반지성주의는 지성의 자기배반적인 산물이라는 점과 그것의 공과 논의(증오와 원한 감정, 저항만 남은 형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

-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지성주의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를 고민한 호프스테터의 입장은 참여적 지식인 공동체의 역할이 민주주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 “소외도, 순응도 아닌” 지식인의 임무가 있음. 전통적인 지적 귀족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계도와는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급진민주주의 기획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임.

○ 반지성주의 비판 담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

- 주권자 인민을 중심에 둔 민주주의와 지성의 삶을 중심에 둔 합리주의 관계는 자명한 것이라기보다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 반지성주의 비판 담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

5. ‘반이성주의’(Anti-Rationalism) 사조와 결부된 반지성주의 담론

○ 종교적 부흥주의 운동과 철학적 반이성주의

- 호프스테터는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지성주의 대중운동은 종종 철학적·신학적 사조로서의 반합리주의(반이성주의) 사상가의 사상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철학적 반이성주의 사상과 정치적 반지성주의 대중운동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로 연결고리가 있고, 때로 크로스오버하기도 한다는 점.
- 유한한 운명을 지닌 인간, 인간의 삶에서 지성의 자리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고민.
- 정치사상사적인 관점에서 주지주의(主知主義)와 주의주의(主意主義)의 오래된 논쟁.
- 한편에서는 근대세계에서의 주지주의화 및 세계의 탈주술화 담론이 자리잡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 계몽이성에 대한 도전들. 야코비의 이성주의 비판이나 낭만주의 전통, 니체의 반이성주의나 레오 스트라우스의 신학-정치적 문제 등.
- 지성의 삶. 묻는다는 것의 정치성. 정치사상사의 맥락에서 “삶의 의지”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6. 나가면서

- 허위정보 범람 등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힌 '픽션의 지배'(Fictio-cracy)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 극단적인 음모론에 사로잡혀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붕괴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제재의 필요성.
- 오늘날 피로사회. 피로감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유연성이 상실된 세계.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대단히 제한된 세계. 지성의 문제라기보다 자기 안에 갇힌 채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흐름에 대한 비판. 문해력 논란 근처에도 사회를 지탱하는 공통감각의 상실 우려 때문.
- 다른 한편으로 반지성주의 담론은 다양한 맥락읽기를 위해 도입. 디지털 세계로 진입한 오늘날 질문의 지평 역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 아울러 정치 프로파간다와 침소봉대하는 흐름 속에서 반지성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직적 차원에서 뻘히 보이는 사실조차도 조작하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를 비판하는 논의로 반지성주의 담론이 주목을 받음.
- 이 글에서는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개념 뭉치(cluster of concepts)들 일부 소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분석하기보다 기존의 정해진 틀 안에서 반지성주의 담론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기존의 반지성주의 담론은 논의를 출발하는 하나의 참조점일 뿐.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탐구되어야 할 복합적인 주제 (*)